글로컬30 대학 지원 등 교육 현안 논의

광주시, 교육발전특구 첫 회의…지·산·학 협력체계 가동
RISE 기본계획 '지역·대학 상생…기회도시 실현' 박차

광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도지구 지정에 따라 '실력 광주' 실현을 위한 지·산·학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광주시는 1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교육발전특구 협의회'와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글로컬30 대학 지원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정무창 시의회 의장, 광주지역 대학 총장 및 유관 공공기관장 등 32개 교육발전특구 협약기관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교육발전특구 사업 설명을 통해 지역 대학과 유관 공공기관, 기업 지원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을 개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인재 양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발전특구 협의회에서는 지역대학 인기학과에 대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는 대학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해 지역 우수 인재의 다른 지역 유출을 막고 수도권 우수 인재 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 인재들이 광주에 정주할 수 있도록 대학별 핵심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 우수 기업 발굴, 기업 현장과 교육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산·학 협력 체계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교육발전특구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육부와 정책전문가 자문(컨설팅)을 거쳐 교육 과제에 대한 세부 계획을 올해 상반기 확정할 계획이다.

1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협의회 및대학육성지원협의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협의회'에서는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 30 공모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라이즈(RISE) 기본계획은 '지역과 대학이 상생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정부 4대 목표와 연계해 ▲인재 스킬 업(SKILL UP) ▲기업 밸류 업(VALUE UP) ▲지역사회 그로우 업(GROW UP) ▲대학 라이즈 업(RISE UP) 등 4대 프로젝트와 16개 단위과제를 수립했다.

광주시는 향후 지역대학과 유관기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대학 내부 혁신 및 지역전략산업 성장 계획과 연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교육맞춤형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광주시는 물론 교육청, 대학, 자치구, 유관기관은 협력을 통해 광주가 인재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컬대학 30'을 희망하는 대학은 예비신청서를 오는 22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며 본지정은 7월 발표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日단체관광 유치

3일간 바닷길 투어…순천·광양·여수 등 전남 방문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14일 "진도 신비의 바닷길 상품을 신규 출시한 결과, 지난 13일까지 3일간 일본인 관광객 56명이 진도를 비롯한 순천, 광양, 여수 등 전남 곳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0월 오사카에서 열린 '투어리즘 EXPO 재팬 2023'에서 전남의 미식, 웰니스, 한류 등 일본 맞춤형 최신 관광 정보를 활용해 현지 여행사 관계자와 일반인에게 전남의 매력을 알린 결과물이다.

일본인이 사랑하는 전통가요 10선에 들어가는 명곡 중 텐도 요시미의 '진도 이야기'가 있다. 이 노래의 가사 속에 나오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일본인 관광객이 꼭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로 손꼽힌다.

이번 여행에 참가한 나리야마 요시미 씨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을 직접 눈으로 보고 걸어보니 노래의 주인공이 된 것 같다"며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을 전남에서 누릴 수 있어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이라고 즐거워했다.

전남도는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지속 개발·운영 중이다. 일본 요리연구가 신카이미야코를 전남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해 매년 전남의 다양한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미식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김장투어, 온라인여행사(OTA) 일본상품 판매 등으로 일본인 관광객 1천여명이 전남을 방문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2024-2026 세계관광문화대전 성공 개최와 글로벌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국가별로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선보여 전남의 매력을 알리는 등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일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양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상호 교류를 위해 한·일 역사 교류, 한국음식 칼럼니스트 하타 야스시의 미식투어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체류형 농업지원센터' 귀농 효과 '톡톡'

3년간 교육 이수자 64% 귀농…신규 농업인력 유입 효과

전남도가 지원한 체류형 농업지원센터가 예비 귀농인에게 큰 인기를 끌며 교육 이수자의 64%가 귀농하는 등 신규 농업인력 유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체류형 농업지원센터는 예비 귀농인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센터에 마련된 숙박시설에 생활하면서 영농교육관을 통한 이론교육은 물론 작물 재배에 대한 전문 실습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영농복합 지원시설이다.

현재 전남에는 구례, 고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등 6개 군에 전국 최다인 7개 체류형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연간 최대 96세대, 495명이 입교할 수 있다.

입교자는 예비 귀농인과 인근 지역 선도농업인을 멘토-멘티로 연결해 교육 기간 수시로 컨설팅받을 수 있고 특화품목 재배에 따른 전문지식과 함께 전문가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다.

지원센터에 거주하는 동안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인근 마을 주민과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해 안정적 농촌생활이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이에 귀농을 바라는 도시민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시·군 공모 기간에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체류형 농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693명 중 443명이 전남에 정착하는 등 전입률이 64%에 달한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방 인구소멸,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매년 2개소씩 지원해 2031년까지 1시·군 1지원센터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18일 중앙공원1지구 전문가 검증회의

초과이익·선분양 타당성 계획 변경 적정성 등 검증

광주시는 오는 18일 오전 9시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앙공원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전문가 검증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중앙공원1지구 개발 초과이익과 사업계획 변경 적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각 분야별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원, 건축, 토목, 회계, 금융, 도시계획, 의회,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신속·투명·공개원칙에 따라 전문가 검증회의를 유튜브 생방송, 회의실 외부 모니터 등을 통해 모두 공개한다. 또 회의 결과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는 또 전문가 검증 이후에 진행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도 인터넷 생방송 등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종 변경된 사업협약서도 공개한다. /박선강 기자

광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산업현장 점검

12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홍보

광주시는 14일 "이날까지 이틀간 안전보건지킴이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지킴이는 건설·산업안전기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산업 안전 분야의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12월까지 ▲광주시·자치구 발주공사 및 민간공사 현장 지도·점검 ▲제조업 등 산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 다발 원인인 추락 예방 안전 조치 확인 등 현장 수칙을 중점 점검한다. /박선강 기자

▶1면 '조국혁신당'서 계속

이어 조 대표는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지지자와 시민 등 400여명이 운집해 '조국'을 연호하는 등 열렬한 응원을 보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광주와 전남은 늘 옳은 선택을 해왔다"며 "총선에서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의 용기와 희망, 지혜를 부탁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 세 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 자 금 약 정 금 임 대 료 구 상 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1) [월세110% 돈덩이매물] 대지3,170㎡ 원룸60개
주인전원주택165㎡ 보4,500 월세1,480 매가14억3,800
==========
2) [50%급처분] 신세계 백화점 6차선 대로변1,650㎡
급매 3.3㎡ 당2,000만원 주상복합최적
==========
3) [재개발예정정문앞] 중흥동 대249㎡ 3층건물
급매5억8,000 시세50%급매물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